

<2022년 5월 22일 주일말씀>

하나님과 일체 된 삶

[시대 성경]

사람이 누구든지 온전하기까지는 고통과 고생을 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온전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라. 고통이 없어지고 편안하리라.

하나님과 일체 되려면 깨끗하여라.

참으로 사랑해야 일체 되느니라.

일체 된 자는 온전한 자니라.

[마태복음 5장 47~48절]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19장 20~22절]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로마서 7장 24~25절]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 일체 된 삶>입니다.

-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기를

“나는 언제쯤 고생을 안 하고 고통 없이 살아갈까?” 합니다.

- 이에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기를

“어떤 사람이든지 <나 여호와 앞에 온전하기까지>는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고생>을 안 하고 <고통>을 안 겪고 편안하게 살려면,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나 여호와와 일체 된 삶>을 살아라.” 하셨습니다.

-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와 하나 됩니다.

<자기>가 ‘온전’해야,
<온전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됩니다.

- <사랑의 근본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참으로 사랑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고 일체 될 수 있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된 자>는 ‘온전한 자’ 라고 합니다.

- <온전하여 하나님과 일체 된 자>는 고통이 없고, 평안합니다.

- <영의 세계>에서도 <영이 완성되어 온전해지기까지>는

<자기 위치>에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의’를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을 온전하게 만들면>, ‘온전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은 ‘고통’도 ‘고생’도 끝납니다.

- <육의 세계>에서도

<육이 완성되고 온전해지기까지>는 ‘온갖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다 <육이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일체 되면>,
‘고통’과 ‘고생’은 끝나게 됩니다.

- <온전(穩全)>이란,

사람으로서 하나님같이 온전하여 하나님과 일체 된 것을 말합니다.

- <집을 짓는 자>가 <집을 짓고 살 때까지>는

‘집을 짓는 고생’도 하고 ‘고통’도 겪듯이,

<사람>도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 때>까지는
그로 인해 ‘고생’도 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걸어 다니기까지>는

‘기어 다니는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커서 걸어 다니게 되면, ‘기어 다니는 고통’은 끝납니다.

이와 같이 <온전할 때까지>는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 종교 역사적으로

<구약>은 ‘소생하는 시대’였고,

<신약>은 ‘장성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완성하는 시대’입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종교 역사적으로도, 섭리사적으로도, 각 개인도

<온전하게 완성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기까지>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고생과 고통’이 있다.

<온전하게 완성>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그로 인한 고생과 고통’ 없이 살 수 있다.” 하셨습니다.

- <과일나무의 과일>도

<완전하게 익고 커서 주인이 따서 집으로 가져다 놓기 전까지>는
성장하면서 ‘비바람’을 맞고 커야 됩니다.

<사람>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 <월명동 야심작>도

<온전하게 쌓을 때>까지는 ‘고생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 <영원하신 존재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없으면,
<인간>은 ‘육신에서 끝나는 허무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구원받고 살지 못하면,
<인간의 육신>에서 끝나게 되니, 참으로 허무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서 꼭 잡고 살지 않으면,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다 흐트러져서 살게 됩니다.

- <사람을 중심한 모든 만물>은 ‘물질의 존재’입니다.

<물질의 존재>는 아무리 아름답고 신비해도
‘잠시 폼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고로 영원하지 못합니다.

<육신>도, <지구 만물>도 ‘세상에서 존재하는 때’가 끝나면,
‘그 주관권’에서 같이 끝나 버립니다.

- 만일 생명의 유전자인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지 않으면
<그 유전자>는 ‘무(無)’로 끝나고 말듯이,

<인간>이 <영원한 존재자 하나님>과 일체 되어
온전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과 영의 생명>은 ‘무(無)’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 자기 <육>과 <혼>과 <영>이 일체 되어 살듯이,
 <영원한 존재자 하나님>과 <자기 육과 영>이 일체 돼야,
 <영>이 ‘영원한 생명’ 이 됩니다.
- <사람>이 ‘영원토록 존재’ 하며 기쁘게 살려면,
 온전하게 행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일체 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 받고 살게 됩니다.
-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사는 자들>은
 <그 얼마나 중하고 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가치’ 를 알고,
 ‘믿음’ 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 <세상의 것>을 다 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산 자>는
 <그 영>이 ‘황금천국’ 에 가서 영원토록 사니,
 <최고의 삶을 산 자>입니다.
- <영원토록 기쁘게 사는 삶>을 이루기 위해
 누구나 과정 가운데 ‘고생’ 도 하고 ‘고통’ 도 겪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영원토록 고생도, 고통도 없는 황금천국>에서

〈삼위〉와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 하나님이 왜 이때 〈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고통과 고생〉을 겪어야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온전하고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고생’과 ‘고통’을 겪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는 〈더 온전하게 함〉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일체〉되어
‘모든 고생과 고통’을 끝내 버리자고 주신 말씀입니다.

- 〈월명동 자연성전 하나님의 궁〉같이 완전하게 만들면,
‘고생’도 ‘고통’도 끝나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 〈신앙의 삶〉도 그러합니다.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되면,
‘고생’도 ‘고통’도 끝이 납니다.

-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는 삶〉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지 깨닫고 행하는 데 몰두해야 됩니다.

- 〈온전한 것〉은 〈온전한 것〉과 일체 되고,
〈선(善)〉은 〈선(善)〉과 일체 됩니다.

- 저마다 <자기 신앙>을 파악해 보면,
‘어떤 것’은 온전하고, ‘어떤 것’은 온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만 ‘절대 온전하게’ 하면 됩니다.

- 마태복음 19장 16~24절을 보면,

예수님께 <한 청년>이 와서 묻기를

“저는 <율법>도 지키고,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습니다.

- <예수님>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구나.”

하셨습니다.

- 우리가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켜 행했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온전해지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온전해지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 여호와와 일체> 되어 살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지 말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 <하나님이 해 주시는 말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 <온전하여 하나님과 일체 된 삶>은

<영원한 영의 삶>도 주고,

<육>이 땅에 살 동안에 <고통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합니다.

- <하나님과 일체 된 신앙을 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 이 비바람같이 와도 다 이깁니다.

- <하나님과 일체 된 자들>은

‘세상’ 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 도 이기고, ‘사탄’ 을 다스립니다.

- <하나님과 일체 된 자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주관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 지금은 <온전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돼야 할 때>입니다.
- <지구 세상 80억의 사람들>과 하나 되어 살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영원한 영>을 만들 수 없고, <영원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행할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일체’ 되었습니다.
-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 요, <너희>는 ‘가지’ 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내 안’에 거하면,
<나>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로 인해 <사망>에서 나와 <영생>을 얻게 되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하나님과 일체 되는 것’ 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나님과 일체’ 됩니다.

- <육>도 <영>도 깨끗해야,
‘하나님’ 을 보게도 되고 ‘하나님과 일체’ 도 됩니다.

- 깨끗하게 하려면, 저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과연 죄가 어디에서 와서 죄를 짓게 되는지’ 보니,
<생활>을 하면서 ‘죄’ 가 ‘생활 속’ 에 껴서 왔습니다.

- <사람>이 살아가려면 ‘생활’ 을 해야 됩니다.

<생활>을 하면 ‘생활 쓰레기’ 가 나오듯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죄’ 를 짓게 됩니다.

<죄의 가짓수>는 ‘수천 가지’ 입니다.

그러니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 고로 예수님은 <회개>하면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 까지도 용서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 <생활 속>에 ‘죄가 되는 것들’ 이 껴 있으니,
죄를 피해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짓게 됩니다.

-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말하기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을 지켜 행하고,
<육신>으로는 ‘죄’ 를 짓게 되니 ‘곤고한 사람’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 <생활 속>에 ‘죄’ 가 껴 있으니,
- <죄>를 배우고 ‘죄에 대한 것’ 은 아예 행하지 말아야 되고,
-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 성령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생선도 <가시>와 <살>이 한 데 일체 되어 있듯이,
<생활>과 <죄의 가시>가 함께 일체 되어 살아간다.

고로 <생선 가시>는 발라내고 <살>만 먹듯이,
<생선 가시 같은 죄>는 분별하고 회개하여 없애고,
<깨끗한 생활>만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 <생선>마다 ‘날카로운 가시와 뼈’ 가 있듯이,
<생활 속>에는 ‘날카로운 죄의 가시와 뼈’ 가 있습니다.

〈생선 가지〉를 발라내지 않고 그냥 먹으면,
〈가지〉가 목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 속의 죄의 가지〉를 발라내지 않고 행하면,
〈죄〉가 걸려서 ‘죄의 고통’을 겪고 고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생선 가지〉를 ‘목’에서 빼내듯이,
〈회개〉하여 〈죄〉를 빼내야 됩니다.

- 〈생활 속〉에 ‘수천 가지의 죄’가 깔려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일체 되면〉 ‘죄’와 상관없이 삽니다.
-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을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자기 생활’로 보고 살아갑니다.
 - ▶ 〈이성의 죄〉도 ‘죄’로 여기지 않고 ‘생활’로 보고,
 - ▶ 〈형제에게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도
상대가 그리 대한 것이니 ‘당연한 것’으로 보고,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 ▶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 ▶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자유의지니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 성경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최고 큰 죄’로 봅니다.

〈사탄들〉도 그리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 ‘최고 지옥의 고통’을 줍니다.

-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면 ‘의’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입니다.

▶ 〈보지 말 것〉을 보면 ‘죄’요, 안 보면 ‘의’입니다.

▶ 〈어떤 것〉은 하면 ‘죄’가 되고,
〈어떤 것〉은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됩니다.

▶ 〈하지 않을 말〉을 하면 ‘죄’요, 안 하면 ‘의’입니다.

〈어떤 것〉은 할 말을 안 하고 유구무언해도 ‘죄’가 됩니다.

▶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어떤 것〉은 알았다고 말했는데 ‘죄’였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 〈죄를 안 짓겠다고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것〉도
‘할 일을 안 하고 사는 게으른 죄’입니다.

- 〈죄〉는 이같이 많고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죄〉에 대해 배우고 분별하고,
〈하나님과 일체 되어 살아야〉 ‘죄’를 안 짓게 됩니다.

- <죄>는 ‘몸의 때’와 같고, ‘생활 쓰레기’와 같습니다.

<몸의 때가 없는 자>가 없듯이,
 <생활 쓰레기가 안 나오는 자>가 없듯이,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고로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롬 3:10)

- <몸>을 닦고 <때>를 밀면 깨끗해지듯이,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깨끗해지듯이,
 <죄>를 회개하면 ‘의인’이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니,
 <모든 죄를 회개>하고 ‘더러움’을 없애야
 <정결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됩니다.

- 시대 신부들이니, 무엇보다도 <사랑>에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만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화한 죄’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창조자 하나님>보다 <창造物>을 더 사랑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 드리고,
그다음에 <사람과 만물 사랑>입니다.
- <하나님과 사랑 일체> 돼야,
<하나님의 삶>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지상 천국’이 됩니다.

- <하나님과 일체> 되면,
<하나님>과 같이 행하니 ‘안 될 것’이 없습니다.
-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저마다 <자기 할 일>을 하고, <행실>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 자기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전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희망’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 <하나님>이 <우리>만 쳐다보고 행하시는데,
<우리 육>도 <마음>도 <생각>도 <혼>도 <영>도 썩고 죽어 가면,
‘희망’이 없으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참으로 돕고 함께해 주시며 ‘희망’을 주시니,
우리도 <더욱 온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된 삶>을 살면서
‘희망’을 드러야 됩니다.

- 저마다 ‘무엇을 행해야 온전해지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평소에 <생활 속>에서 꼭 고치고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도 깨닫도록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